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열렬히 사랑하며 살듯이,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듯이,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목적하고 창조하셨다. /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몸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목적’만 이루는데 쓰면서 살고 있다.
3. 인간이 전능자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육’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영’이 육의 행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면, 육신이 죽으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4.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자는 세상에 오셔서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사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어 그와 일체 되어 그 육신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5.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자기 몸과 사랑’을 쓰지 않고, 각자 ‘자기 존재’를 위해서만 ‘자기 몸과 사랑’을 쓰면서 살고 있다. 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 살아도 허무와 곤고요, 영원성 없이 단지 육신만을 위해 살다 끝난다. 그 육신이 ‘자기 존재의 목적’만 위해서 사니, 그 영도 똑같이 육과 같은 형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육이 죽으면 그와 같은 영의 세계로 간다. 그 세계는 곧 지옥이며, 혹은 음부와 흑암 세계다.
6. ‘육’이 ‘땅’에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인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영’도 육의 행실대로 변화되어 천국의 영이 된다. 육을 통해 영이 창조 목적을 이룬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육이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신부로서 살아간다.

7. 자기 존재를 위한 목적은 이룬다 해도 일순간 육신의 삶의 목적이라서 순간 순간 허무하게 지나가고 끝난다.

8. 육신의 삶의 목적은 그때마다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고 끝나게 된다. 고로 허무하고 공허하다. 영원한 미래가 없다. 영원성이 없다. 영원하려면,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삼위 중의 한 분인 ‘성자’께서 총책임을 지고 행하신다. 성자는 땅에 육이 있는 자, 곧 그의 분체를 택하여 그를 육신으로 삼고 보이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고로 성자의 분체를 따라서 성자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10.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도 각자 얼마나 사랑의 세계를 이루며 뜻 있게 보람 있게 사느냐는 각자 책임에 따라 좌우된다.

11. 창조 목적 ‘사랑의 삶’ 속에 구원도 들어 있고, 위함도 들어 있고, 섬김도 들어 있고, 믿음도 들어 있고, 수만 가지가 다 들어 있다.

12. 오직 사랑의 역사다.

13.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깨졌다.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은 후에 다시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아담과 하와 때 창조 목적의 뜻을 시작했지만, 사탄이 꾀어 타락을 했기에 구약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 그 후 때가 되어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분체로 삼으시고 2000년 동안 1차 아들 차원으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셨다. /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다시 재

림하시어 시대의 한 육신을 분체로 택하여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이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며, 1000년 동안 펼쳐진다.

14.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행하며 사니 사랑의 세계, 사랑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려 오신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삶이 육도 영도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삶이다.

15.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들의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성자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휴거된 영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혼인 잔치를 하신다.

16. ‘육’은 육으로서 땅에서 창조 목적을 행하며 육적 휴거 역사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 성자가 재림하시면 그 영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창조 목적을 행한다. 천국에서 혼인 잔치만 1000년 동안 한다.

17.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18. <육신 존재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목적을 두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것이다.

19. 그러나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자기 사랑의 목적으로 살고 있다.

20. 창조 목적을 이루었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느냐에 따라 보람을 느낀다.

21. <성자 재림시대>는 하나님 창조 목적 실현 시대다.